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023년 신년하례식 성료]

제29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023년 시무식이 1월 14일 워싱턴 DC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참석한 임원들을 중심으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국승구 대내총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지난 1년 열정을 보여준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금년 1년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병직 대외총회장은 대내 총회장과 협력하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역사편찬과 4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일 이사장은 두분 총회장을 도와 모든 사업계획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데 이사장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승구 대내 총회장이 발표한 2023년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계획]

- 현직 한인회장 Workshop(4월 예정)
- 한인 청소년 범죄 수감자 실태 파악(년 중)
- 한인 파양 입양인 실태파악 및 관리(년 중)
- 미주지역 차세대 컨퍼런스: 2023년 5월경 추진 계획
-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 문화행사 및 창립 45주년 기념행사(7월 예정)
- 미주총연 요람 발행

[2023 추진사업 계획]

- 동포청(처) 신설에 관한 미주총연의 입장표명 필요. 세계한인회총연합회와 연계하여 동포청으로 승격과 현실적 동포지원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 TF팀 구성
- 신규회원 등록 및 환영계획: 신임 한인회장에게 Welcom Package 배송 위원회구성. 장학금 지원 등.
- 원로회의 창설: 전직 총회장님들을 주축으로 한 조직.
- 회칙 축조 심의위원회 구성: 회칙의 각 조항에 잘못되어 있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는 위원회
- 장학위원회 구성 및 재원확보 실천
- 부적격 임원해직: 정명훈 취임식에 참여했던 29대 임원은 임명 받은 직책에서 해임, 적극 가담자는 상응하는 조치키로 함(관련 전직 총회장은 예우박탈)
- 세계한인회장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김병직 대표회장 신년인사



서정일 이사장 격려사